中 6중전회 개막…‘역사결의’로 시진핑 3연임 명분쌓기

공산당 100년 사상 3번째 결의
시진핑, 마오·덩 반열 오를 듯
‘공동부유’ 정책 당위성 등 담겨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을 다지는 자리가 될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가 8일 개막했다.

중국중앙(CC)TV는 “19기 6중 전회가 8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회했다”며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전체회의에 업무보고를 하고, ‘당의 중대 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이하 역사결의)’ 토론 초안에 대해 전체회의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초안 토론을 거쳐 이번 회의 최종일인 11일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 결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약 1년 앞두고 채택될 역사결의는 시 주석을 마오쩌둥(1893~1976), 덩샤오핑(1904~1997)과 사실상 동급의 지도자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공산당 100년 역사의 중요 사건을 돌아보고 시 주석 장기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신중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홍콩 명보(明報)는 새 결의가 시 주석의 업적을 공고히 하고, 내년 제20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3연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공산당 100년사를 3단계로 분류하는 논법에 따라 시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에 이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3대 영도자의 반열에 올리는 내용일 것으로 명보는 전망했다.

이번 결의는 시 주석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은 1, 2차 결의와 비슷하지만, 전임자들의 과오를 적시하기보다는 100년 공산당사를 긍정하는 논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 시절인 1945년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이전 지도자들의 과오를 총결산했고, 덩샤오핑 때인 1981년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는 문화대혁명을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로 평가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차 결의의 이름이 1차와 2차의 ‘약간의 문제’가 아닌 ‘역사 경험’인 것을 놓고 “시 주석이 당의 역사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바꾸거나 의문을 던지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 당의 성과를 강조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역사 결의 채택은 시 주석의 초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2018년 중국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초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강조와 함께 개혁 개방의 최대 그늘인 빈부 격차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내용이 이번 역사 결의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취임 열 달도 안된 바이든 지지율 또 최저치

대선 재출마 반대 트럼프보다 높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미국 일간 USA투데이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과 서퍽대가 3~5일 미국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8%로 집계됐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9.0%였다. 앞서 9월22일 발표된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3%였고 지난달 22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선 42%였다.

설문 대상자의 63.7%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연임을 위해 출마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반대하는 응답은 58.4%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낮았다.

‘오늘 대통령 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답은 40%로 트럼프 전 대통령(44%)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낮았다. ‘오늘 의회 선거를 한다면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야당인 공화당이 46%로, 민주당(3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번 여론 조사를 담당한 서퍽대 데이비드 팰리올로고스 정치연구센터장은 “민주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66%가 “미국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답해 트럼프 전 정부의 마지막 주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이 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27.8%로 더 낮았다. 최근 에머슨 칼리지가 벌인 여론 조사에서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맞붙을 경우 예상 득표율은 43%대 45%로 바이든 대통령이 낮았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은 재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지만 이미 78세로 고령인데다, 민주당 지지자도 다른 인물을 선호하는 여론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개월만에 육로 입국 허용하는 미국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접경한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티후아나의 산이시드로 검문소에 차량이 몰려든 모습. 다음날부터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육로를 이용해 입국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재개방한다. 이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후 비필수 차량에 대한 입국을 제한한 지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코로나야, 감기야, 독감이야?

겨울 오면서 진단에 진땀
“코로나 검사가 가장 확실”

겨울이 오면서 코로나19와 독감, 감기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영국의 일간 더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의 독특한 점은 증상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기침과 콧물, 두통, 재채기, 근육통, 발열 증상을 보이고 미각이나 후각을 잃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는 증상이 다양하고 독감이나 감기와 비슷해 증상만으로는 감기나 독감과 구분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증상을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든 킹스 칼리지 런던의 팀 스펙터 교수는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전형적인 증상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감기와 코로나를 구별하기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존 맥컬리 세계인플루엔자센터장도 “환자들의 일관성이 홍역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에서는 최근 감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청(HSA)에 따르면 감기와 독감 증상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에 걸려오는 전화는 이맘때 평년 대비 훨씬 많다. 특히 15~44세의 환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스펙터 교수는 “매일 3만8000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있지만, 감기에 걸리는 사람의 수는 4~5배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약 콘서트였나…미국 광란의 8명 압사 사고 수사 확대

마약 주사기 투여 의혹
살인·마약 전문 수사관 투입

미국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이 개최한 콘서트에서 최소 8명이 숨지는 압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마약 범죄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했다.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수사 당국은 콘서트 참석자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주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마약 범죄 수사관들을 투입했다. 압사 사고는 지난 5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발생했다. 스콧의 콘서트인 ‘아스트로월드 뮤직 페스티벌’에는 5만 명 팬이 참석했고, 흥분한 관객들이 무대 쪽으로 일시에 몰려들면서 8명이 압사했고 수백 명이 다쳤다.

트로이 피너 휴스턴 경찰서장은 관객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주사기로 마약을 투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살인·마약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콘서트장 보안요원 1명은 사고 당시 현장을 통제하던 중 목이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여러 관객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이들은 마약류 해독제로 응급 처치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휴스턴 수사 당국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마리화나 소지, 약물 중독, 불법 침입 혐의 등으로 25명을 체포했다. 또 300여 명이 약물 과다복용과 부상 등으로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압사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신원도 일부 드러나고 있다. 14살, 16살 휴스턴 고등학생을 비롯해 21살 대학생 등 사망자 8명 중 7명은 10~20대였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휴스턴을 관할하는 해리스 카운티의 선출직 행정책임자 리나 이달고는 이번 압사 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달고는 콘서트 안전 계획이 불충했거나 계획이 있었어도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해답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스콧은 트위터에 공개한 동영상 성명을 통해 “콘서트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